

월남전을 소재로 한 한국 소설의 고찰*

-시선의 변모 과정을 중심으로-

장 윤 미**

I. 머리말

최근 한국에서 월남전에 대한 한 편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바로 2008년 7월에 개봉한 「님은 먼 곳에」¹⁾로 이 영화는 남성 중심으로 풀어나갔던 기존의 전쟁 서사를 여성의 시선을 통해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낸 작품이기도 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님)을 찾아 베트남(먼 곳)에 가는 여인의 여정은 그동안 억압되었던 자신의 감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월남전’이라는 서사(敍事, narrative)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월남전은 전쟁의 참상이나 살인 행위를 대상화(對象化)시켜 표현하는 것에 그치거나, 객관적 사실 중 특정 부분을 왜곡하여 마치 그것이 보편적 관념이라고 인식하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동안 전쟁 서사에서 영역 밖으로 내몰렸

* 이 논문은 인하대·하노이 국립대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인하대 박사과정(haetssal80@hanmail.net)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nim2008.com>을 참조할 것.

던 타자를 전면에 세우는데 바로 주인공 순희(씨니)이다. 순희(씨니)는 베트남에서 한국군을 위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베트남 인민들과 함께 교감을 나눈다. 남편을 찾아오라는 시어머니의 암묵적인 요구는 비록 그녀를 전쟁터로 내몰았지만, 순희(씨니)는 불모지와 같은 베트남 땅에서 베트남 민족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통해 그들과의 교류 지점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순희의 목소리를 빌어 월남전의 담론을 재생산하고자 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월남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우리는 월남전에 대한 기억이 한국인에게 이미 지나버린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에도 역시 현재 진행중인 역사의 일부임을 인지할 수 있는 사고(思考)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과 베트남은 같은 아시아권에 속해 있지만 각각 동북과 동남에 위치하여 지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관련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좀더 깊이 천착해보면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역사적인 유사성을 찾아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각각 안동 도호부와 안남 도호부라는 명칭으로 중국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 제국주의 팽창 시기에 각각 일본과 프랑스의 피식민 공간이 되어 제국주의로부터 독립 투쟁을 불사했다는 점,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분단과 민족 전쟁의 비극적 체험 등 역사적으로 정점을 이룬 사건들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더라도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이 ‘한국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면, 인도차이나 전쟁, 한국에서 ‘월남전’이라 불리는 베트남전쟁은 베트남 민족이 겪었던 비참한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이 물리적인 공통 지점을 갖게 된 사건 역시 월남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요청과 한국전쟁의 보은(報恩)이라는 명목으로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전 파병을 실시했던 것이다.²⁾

월남전은 당시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도 월남전은 당시 한국 국민들에게 대단한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 비록 그것이 전쟁의 참상을 등지고 있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한 세대가 지난 지금까지 중요한 담론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여전히 월남전 이야기가 한국에서 재생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한국이 베트남에 남겼던 상처와 그 흔적을 아직도 완벽하게 지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월남전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스스로 가해자임을 선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만큼 한국은 아마도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망각하고 싶은 욕망이 더욱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망각은 결국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왜곡된 채 다시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한국문학에서 ‘월남전’은 다른 장르에서 엿볼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소재이다. 특히 한국이 직접 가해자로 참가했던 유일한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까지 ‘월남전’을 소재로 한 한국 소설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각이 변모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지점에서 소설에 특수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남전 직후에 등장한 소설들은 총체적 시각이 부재

2) 한국군은 지난 64년 7월18일부터 73년 3월23일까지 8년8개월간에 걸쳐 총병력 3백12만8천53명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4천9백60명이 전사하고 1만9백62명이 다치는 희생을 치렀다(한겨레신문 93/11/20, p.10).

한 채 자아로 침잠하는 등 전쟁 속 자신을 바라보는데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소설에서 ‘나’의 시선은 그들의 시선,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으로 전망이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 얻은 월남전에 대한 한국인의 깊은 자성과 고민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을 주인공으로 한 일련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여 베트남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이 변모되고 확대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은 양적인 면에서 그리 풍부한 편이 못된다. 또한 베트남을 공간적 배경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는 텍스트를 선택한다면 그 양은 훨씬 줄어든다.³⁾ 따라서 월남전을 배경으로 소설들을 일련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무엇보다 월남전에 참전한 작가들이 전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탐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제 3세계적 세계 인식의 결여(고명철 2003: 295)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설속의 등장인물은 베트남전쟁을 그들의 전쟁으로만 이해하고, 자신 역시 전쟁의 피해자로 위치 짓고 혐오감을 표출하는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자들 역시 주인공

3) 전쟁이라는 소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편보다는 중편 이상의 길이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의 전말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인물들 간의 내외적 갈등을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당위성과 진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도에 따라서 월남전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편 소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송영(1970) 『선생과 황태자』, 심상웅(1973) 『심야의 정담』, 이원규(1987) 『훈장과 굴레』, 이상문(1987) 『황색인』. 이 외에 비록 베트남 전쟁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 이후의 서사를 다룬 소설로 오현미(1995) 『붉은 아오자이』와 이대환(2001) 『슬로우 불릿』이 있다. 각각 라이파이한과 고엽제 문제를 다룬 소설로 기존에 등장했던 월남전 소재의 빈약성을 극복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를 언급하여 주목받은 소설이기도 하다.

공들의 심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전쟁이라는 기제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는가에 집중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 방향이 사회과학과 접목되면서 전쟁 소설을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의 시도가 연구의 양은 물론 질적으로도 풍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학제간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월남전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의 변모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월남전에 대한 담론은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데 이는 매우 유용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월남전에서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이 두 양면성에 대한 총체적 통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텍스트 선택의 기준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서사 진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무엇보다 전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따라 서사 진행의 방향이 전혀 달라기 때문에 화자의 위치를 뚜렷하게 확보하고 있는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형성에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의식이나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함의하고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월남전은 한국이 가해자로 참전했던 유일한 전쟁이지만, 소설 텍스트에서는 대부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거나 가해자의 위치를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불균형적 시각이 점점 수정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언급하려는 텍스트들이 기존 연구 업적에서도 이미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지만, 시선의 확장이라는 기준으로 텍스트를 다룬 연구 업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자기연민적 시선에서 탈피하는 대신 월남전이 배태하고 있었던 전쟁의 본질과 한국이 놓여있는 위치에 대한 재확인과 그 안에서 분열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에 주목할 것이다. 여기서 분열이란 곧 피해의식과 가해의식을 함께 인식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의 역사적 체험과 함께 베트남이라는 낯선 공간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어우러지면서 그동안 외면하고자 했던 기억의 억압을 외부로 끌어올림으로써 하여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확인하고 반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발견은 전쟁 서사 연구에 있어 이분법적 사고에서 고착된 우/열의 관계가 아닌 제 3세계적 시선 그리고 보편적 시선으로 다가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전쟁의 공포 인식과 그 한계 -박영한, 『머나먼 송바강』

한국에서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 소설은 박영한(1978)의 『머나먼 송바강』이다.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한국군인 황일천과 베트남 여인 빅 뚜이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에 놓는다. 그러나 서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황일천이 전쟁 체험으로 인해 얻은 자아 상실감에 더 깊이 친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 행위와 살육에 대한 고발보다 ‘나’ 역시 전쟁의 피해자라는 강한 관념이 소설 전반을 아우른다. 전쟁이 보여주는 근본적인 참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오로지 존재에 대한 회의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인공의 미성숙한 태도는 진정한 전쟁문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당시 한국 참전군인들은 베트남 군인들이나 미국 군인들과는 변

별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베트남 국민들에게 전쟁 발발과 그로 인한 결과는 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참전은 당연한 행위였다. 즉 전쟁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족 전체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만큼 베트남 국민들에게 전쟁 참전의 목적은 명확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비롯된 물질적, 정신적인 아픔은 개인의 고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담론으로 형성되어 그들이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쟁 참전으로 인해 발생된 구조적 문제들은 당시 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의 각자 개인 문제로만 취급되었다. 그러나 월남전의 종반에 이르러서야 미국 자체 내에서 반전평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참전 군인들이 떠안고 있었던 전쟁의 고통을 미국 시민들이 함께 수궁, 공유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김현아 2002: 79).

그러나 한국 군인들은 이들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당시 월남전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참상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국가’와 ‘경제’를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의 모습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군을 ‘미국의 용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 군인의 베트남 참전 동기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이기도 하다. 월남전을 자원했던 사람들의 공통 목적이 ‘돈’을 위한 참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다. 전쟁에는 아군과 적군이 있으며 아군은 적군을 섬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다. 하지만 월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은 전쟁에서 이러한 대립 구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그들에게 부여한 ‘자유수호’라는 임무 역시 그들의 참전 목적을 뚜렷하게 해주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결국 참전 군인들은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왜 타인의 자유를 위해 자신이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계속 반문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⁴⁾ 이러한 전쟁의 이중적인 면모는 개인에게는 살인 행위의 정당성을 경제성에 두도록 유도하고, 국가담론은 그것을 은폐시키는 대신 참전군인들의 용맹함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전쟁으로 얻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불안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남아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고통은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으로 희석되어 버려 전쟁과 관련된 은폐된 진실을 외부로 표출시킬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⁵⁾

소설 『머나먼 송바강』 속의 주인공들 역시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들로부터 연민의 시선을 거둔다. 대신 자신 역시 전쟁의 피해자로 위치시켜 놓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은 전쟁이 지닌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를 외면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공포의 대상을 죽음에서 자아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전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위성을 얻기 힘들다. 결국 그는 고민에 대한 결론으로 외부로 향한 책임 전가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짙은 체념에 그치고 만다.

4) 이러한 모습은 『머나먼 송바강』이나 『하얀전쟁』에서 주인공들이 반복하는 독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가장 고민 하는 것은 ‘전쟁 속에 놓여 있는’ 나 ‘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문제 해결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 현실에서만 찾으려 하는 등 책임회피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그쳤다.

5) 한국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 군인들에 대한 진상을 재조명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지난 2004년 MBC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월남전의 실상을 보도했다. 프로그램에서 한국군의 참전은 미국이 인종 이데올로기 논쟁이라는 약점에서 비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으며, 동시에 전쟁을 시장으로 한 상거래였다고 언급하는 등 월남전에 대한 진상을 새롭게 조명했다.

전쟁이 허무맹랑하다는 건, 엄청난 물량을 뿜내며 우렁우렁 지나가는 저 미군 차량들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소총을 떨렁대며 상관의 군홧발에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껴 온 나란 참 허무맹랑한 존재였다. 내가 바라던 삶은 적어도 그런 건 아니었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뜨거움을 느껴보며 틀림없이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 내가 바라는 삶이란 애초부터, 바다 건너 저쪽에도 이쪽에도, 월남지도의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박영한 1978: 107).

자신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대신 전쟁의 허무함만을 강조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독자는 인간적인 연민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정제(精製)되지 않은 동정에 불과한 것이다. 서술자는 주인공의 고뇌 뒤에 숨어있는 전쟁의 참상을 함께 그려내지 않으면 안된다. 주인공의 “병사가 저지른 행위란 단지 위에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은 미성숙한 개인의 태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명령자와 실행자의 책임은 별개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행자에게는 실행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령자와는 별개로 실행자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비로소 진정한 ‘개인’이 될 수 있다(노다 마사아키 2000: 191). 비록 자신이 가해자라 할지라도 참전과 그로 인한 모든 행위는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한 것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며 이는 곧 전쟁을 바라보는 공평한 시각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머나먼 송바강』에서 화자는 총체적인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외면하고 대신 협소한 시각으로 독자로 하여금 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감정적인 연민에 머물도록 한다. 최원식(1997)은 소설 『머나먼 송바강』의 대중적 인기 비결은 이국적 연애소설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소설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한다. “요컨대 작가의 시각이 문제의

핵심이다. 해방전선 포로를 향한 ‘인간 그 자체엔 증오가 없었다. 증오라면 오히려 그 포로가 속한 집단, 살육을 정당화시켜 주는 그 집단의 광기 쪽에 있었다’고 몰아붙이는 냉전적 시각 속에서 베트남전쟁은 결코 그 본질적 자태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1997: 382). 여기서 ‘베트남전쟁의 본질적 자태’란 그것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인인 제국주의의 시장 논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머나먼 송바강』은 이러한 배경을 외면한 채 왜곡된 시선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전쟁문학이 지녀야 할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아쉬운 소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영화로도 제작되어 『머나먼 송바강』과 함께 세간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안정효의 『하얀전쟁』(1992)⁶⁾ 역시 『머나먼 송바강』에서 보여주었던 자기연민적 시선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머나먼 송바강』의 황일천이 전쟁의 참상을 외면하는 대신에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한 책임 거부와 짙은 회의감을 표출하는 모습 등은 『하얀전쟁』의 주인공 한기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기주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재이지만 자신도 모를 존재감 상실에 대해 깊게 회의감을 갖게 되고 결국 월남행을 결심한다. 그와 함께 월남전에 참전했던 변기수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한기주에게 총을 주고서는 자기를 죽여 달라고 부탁한다.

두 인물이 월남전에 참전해야 했던 이유는 서사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한기주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과 자각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기대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6) 안정효(1992) 『하얀전쟁』 고려원. 영화는 1992년에 개봉하였는데 한겨레신문은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시각으로 그린 첫 베트남 영화”(한겨레신문 92/06/21, p.9)라는 평가를 했으며, 실제로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영화이기도 했다.

는 것을 느끼게 되고 허무감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그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를 찾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베트남 전쟁터였다. 변기수 역시 사회적응불능자로서 군대에서 주변인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받는 등 집단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선택한 곳이 베트남이었다. 이 둘에게 전쟁터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에 불과했고 따라서 전쟁과 관련된 외부적인 시선이나 역사적, 국제적 인식은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하얀전쟁』이 동양인의 시각으로 월남전을 그린 소설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과 월남전에 대한 참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려고 했다는데 소설적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소설의 서사 형식 측면에서도 종군기자로서 작가의 체험이 과거와 현실의 교차 시점 차용 형식과 함께 맞물리면서 소설의 새로운 방식을 도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역시 전쟁의 참상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대신 사건의 실마리가 주인공 내부로만 침잠해 들어가고 전쟁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에 두려워하는 개인적 시선에 머물러 있다는데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주인공 한기주는 스스로 자신을 지식인으로 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서와 행동 및 판단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지식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무지(無知)나 무반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의 지적 과시는 지극히 편협 되고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고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의 틀 안에서만 완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서 그치고 만다(김철 1990: 310). 작가는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를 회의하고 무익했던 전쟁을 고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를 포섭하고 있는 완강한 어떤 이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불행하지만 한기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굳게 믿는 한(김철 1990: 312) 아마도 반성적 태도는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화자는 결말을 통해 한기주와 변기수 이 두 사람의 삶의 실패에 대해서는 전쟁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모든 실패가 다 전쟁 탓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과잉변명일 뿐이다. 더구나 월남전에 대한 자기합리화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에 동시에 설 수밖에 없었던 한국군 참전자를 다만 피해자의 위치로 일반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체험을 편향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송승철 1993: 83)에서도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위 두 소설이 베트남전을 언급한 초기소설이기에 이러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는 있지만, 사실을 외면하고 객관적면서도 통찰적인 입장을 유지하지 못한 작가로서의 직무유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III. 전쟁 안에서 전쟁을 보는 또 다른 ‘눈’ - 황석영, 『무기의 그늘』

『무기의 그늘』을 언급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텍스트가 있는데 바로 황석영(1970)의 데뷔작이기도 한 「탑」이다. 「탑」은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무엇보다 「탑」에서 눈여겨 보여야 할 것은 ‘탑’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변화되는 지점이다. ‘나’는 R-POINT에 도착하자마자 탑을 지키라는 상부의 명령에 꽤나 실망하고 만다. 목숨을 담보로 지켜야 하는 것이 고작 돌덩어리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으며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속된 교전을 겪으면서 저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돌덩어리가 ‘정치적 가치를 지니며 지방민의 사랑과 애착의 대상임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 보존되어야 할 가치’(황석영 2000: 62)를 지닌 것으로 생각이 변모한다. 또한 ‘탑 지키기’와 유사한 행위로 마을 곳곳마다 행해지고 있는 ‘향 피우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반전(反戰)’을 의미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탑과 향이 ‘나’에게 부여하는 것은 포성과 총성이 오가는 공포가 아니라 반전과 평화를 바라는 심리적 안정이다. 왜냐하면 탑과 향은 그것이 종교의 성격을 초월하여 전쟁이 멈추길 바라는 기원의 매개체이고, 외부로부터 탑을 지키는 시간과 향을 피우는 시간만큼은 상대를 향한 공격이 저지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탑은 군사적 도구에서 반군사적인 장치로 인식된다. 그러나 미군 중위는 그러한 내적 진실을 보지 못했고, 다만 ‘골치 아픈’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돌덩이 탑’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한다. 미군 중위의 목표는 그들과 우리들을 지켜주었던 것에 대한 사수(死守)가 아니라, 그것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를 고착시키는 것뿐이다. 미국 장교가 탑을 바라보는 시선이 곧 서양이 지니는 정형화된 이분법적 구조⁷⁾라면, 이러한 판단은 ‘탑’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와의 의견 대립을 야기하게 된다. 즉 미군 중위가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사고방식과 ‘나’의 토착민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상대적이면서 보편적인 태도와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 중위와 나와 충돌하는 이 지점은 곧 반(反)정형화의 공간 그리고 탈고착화의 지점(문재원 2005: 418)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은 결국 미군 중위를 명령으로 탑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종결되는데 이러한 결말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작동되었던 전쟁의 본래적 모습을 객관적으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소설과 갈라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탑」은 월남전에 배태하고 있었던 제국주의와 피식민지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존재하

7) 이러한 미군장교의 정형화는 서구의 과학기술과도 결부시킬 수 있다. 서구 과학 기술은 자본주의와 맞물리면서 부를 창출했지만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제 3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정치적인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 주종관계를 심화시켰고 결국 제 3세계의 정신적인 면까지 침식하려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유경수 2006).

고 있는 주체/타자, 이해/파괴(몰이해), 절대/상대적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탑」이 서술하고 있는 사건이 다소 피상적이고 단선적이고, 전쟁의 묘사와 탑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서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쟁의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은 『무기의 그늘』에 의해 극복된다.

우선 월남전에서 베트남, 미국 그리고 한국에게 공통적으로 작동했던 기제는 자본의 논리였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전쟁이 베트남의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명철 2003: 301)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황석영(1985)의 『무기의 그늘』은 월남전을 무대로 하여 제국주의 문제를 탁월하게 소설화한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가 지닌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앞 소설들과의 변별점은 이전의 소설들이 전쟁을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이 부재했고 개인에 수렴된 전쟁의 상처에서 그치고 말았던 반면, 이 소설은 그러한 한계점을 뛰어넘었다는 데 있다(임규찬 1995).

주인공 안영규는 전쟁 속에는 살육(死)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한 생(生)의 뒷거래가 있음을 비판적이고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자유수호’의 이름으로 비쳐졌던 ‘베트남전쟁’이 실은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행된 것임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작가는 안영규의 시선을 통해 제국주의 전쟁이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커다란 장사에 지나지 않음(최원식 1997: 388)을 간파하고, 자본주의 논리 아래에서 벌어지는 베트남 전쟁을 제 3자의 시각으로 조망한다.

내가 여덟 살 때 전쟁이 터졌다. 아니 내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식민지로부터 풀려났지. 내 부모 세대들은 다른 강국을 위하여 식민지의 용병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도처에서 지금처럼 죽어갔다. 너희들은 그때부터 왔다. 너희 정부는 우리의 국토를 반으로 갈라서 점령했다. 내가 아메리카인과 근무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우리는 똑같다, 너는 아메리카인과 차이가 없다, 하는 따위를 수작들이다. 그러면서도 베트남의 국(gook-인용자)들은 더럽다고 속삭인다. 국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쟁 때 너희 군대가 한구육이라고 우리를 비웃던 말이다. 나는 오히려 내가 베트남인과 같다고 말해버린다. 우리가 겪은 **이러한 삶의 조건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아시아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당해온 조건이다. 백인들은 사냥감을 다투는 짐승들처럼 여러 대륙에서 피문은 발톱과 이빨로 서로를 물어뜯었다.**(강조-인용자) 놀란 시늉을 하지 마라. 만약에 자네가 이런 따위의 전쟁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네는 평생 동안 이 전쟁터에서 보고 들은 일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다. 그건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꼭 내 고향에 돌아가 이 보상을 해내리라 작심하고 있어. 너희 신문에서 보았다. 데모 대원의 피켓에 써어 있더라. ‘우리는 베트남을 위해서 죽기는 싫다!’라고. 것처럼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수작은 없다. 뭐 베트남을 위한다고? 너희 병사들은 허겁스레기 같은 더러운 빈민가의 뒷골목에서, 어두운 바에서, 할인표를 오려갖고 달려가던 슈퍼마켓에서, 기름투성이의 차 밑바닥에서 이리로 끌려왔다. 왜냐고? 도련님은 여기 안오니까. 너희들 기업가들과 그들의 세일즈맨인 정치하는 자들에게 물어보렴. 너희가 베트남의 수렁에 빠져 개처럼 죽어가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야(황석영 2006: 133).

안영규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을 체험하면서 공통분모로 존재했던 미국의 위치를 간파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선의 발견은 전쟁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든다. 전쟁통에서는 죽기 싫다고 탈영하려는 스태플리의 모습이 스스로를 전쟁의 피해자라 규정하고 감성적인 자기연민에 빠져버린 전형적인 미국군인인 반면 안영규는 스태플리의 예상처럼 탈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탈

영은 임시방편적인 회피에 불가할 뿐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영규라는 인물은 『머나먼 송바강』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왜곡되고 협소한 ‘나’의 시선에서 확실히 탈피한다.⁸⁾ 안영규는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연민적 감정에서 어느 정도 탈각한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전쟁의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전쟁물자의 뒷거래(블랙마켓)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전 소설이 전쟁 전방에서 벌어지는 비참함과 죽어가는 동료,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을 향한 연민들이 서사의 중심이었다면, 『무기의 그늘』은 그러한 소설과 충위를 달리한다. 사실 전쟁은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동시에, 전쟁을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기제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베트남전쟁은 자본주의 전쟁이기도 했던 만큼 그것은 바로 자본, 돈이었다. 처음 안영규가 시장조사를 나가서 블랙마켓의 정보를 캐내고 그 대가로 받았던 돈은 그가 전쟁터에서 보름동안 죽을 각오로 싸우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 사십 달러였다. 그리고 보름이란 시간은 갈가리 찢겨 시체가 된 동료를 수차례나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부터 그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고 귀국까지 남은 시간동안 가장 효율적인 경제공작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8) 황석영은 『무기의 그늘』 1992년 개정판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대충 이곳(미국-인용자)에서의 베트남에 대한 인식은 역시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휴머니즘, 그리고 나서 반전주의, 아니면 좋은 군인 나쁜 군인 식의 반성적 기록물, 그리고 좀더 심화한다는 게 고작 상처받은 개인의 내면 따위들이다. 전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전쟁에서 미국은 무엇인가. 미국의 사회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아시아와 제3세계 민중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생각하나 등등 수많은 근본적인 접근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황석영의 이러한 지적은 우리들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영규와 함께 공작원으로 등장하는 베트남 출신인 토이는 안영규와 일정부분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반대로 안영규가 갖고 있지 못했던 강한 민족주의 의식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내가 집(한국-인용자)에 간 뒤에도 오랫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너는 그냥 이 직업으로 살아갈 테냐?”

“몰라, 남베트남에서 먹고사는 정부군, 관리, 경찰, 민병대 등이 수백만이다. 하여튼 적령기에는 누구나 징집영장이 나온다. 누구나 천 달러만 경찰서에 내면 빠질 수도 있고, 삼백 달러면 공군이 나 해군이나 덜 위험한 곳이 배치된다. 그렇게 살고 있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에서 산다. 내 자식들도 너도 돌아가면 토이를 그렇게 기억해라”(황석영 2006: 201)

토이는 스스로를 미국과 베트남이 낳은 변종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베트남 곳곳에 많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쟁이 싫다고 탈영을 하다 총살당한 미국 군인 스태플리나 미국 곁에서 이익을 바라고 경제공작을 수행하는 안영규와 토이가 다른 점은 그가 베트남 땅에서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심이다. 미국과 한국은 실리를 따지고, 결국 전쟁을 끝내고 나면 베트남을 떠날 것이지만 토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그가 베트남 국민으로서 자신의 조국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이가 안영규와 유대감을 갖게 되었던 감정의 기저에는 자신이든 안영규든 미국인들에게는 모두 구육(gook)이고 슬로프헤드에 불과한 존재라는 강한 관념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안영규가 잊지 않도록 주지시켰고 동시에 자신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 타자의 위치에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독립된 주체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자신은 미군

군수물자를 팔아넘겨 그 이윤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코친차이나와 남부 월남의 현실이 만들어낸 기회주의자”(황석영 2006)이지만, 그 방식은 그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는 미국을 선망하지도 않으며, 부패한 남베트남을 옹호하지도 않는다. 현실과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삶의 안위를 도모하지만 그의 최종 목적은 가족과 함께 이 잔인한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그의 이런 소망은 소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서는 비장한 다짐이 숨어 있다. 그에게 가족은 곧 자신의 민족이었으며 자신의 조국이기도 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처럼 전방으로 나가 직접 전쟁을 치루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권력과 타협하여 미래를 보장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 스스로 “변종”, “기회주의자”의 길을 선택한다. 그 이유 역시 베트남전쟁이 지닌 자본주의 논리라는 특수성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는 이 논리에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가장 유리한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비민족적 권력과 유착하지 않되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으로 자본주의 그늘 즉 블랙마켓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그가 지니고 있는 탈제국적 시선을 포착할 수 있다. 비록 국가를 지탱시키는 그의 방법이 여타 다른 국민들과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이가 민족적 신념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민족성의 영원을 바라는 간절한 태도는 그가 결코 베트남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가는 남베트남 출신인 팜 꾸엔 소령의 서사, 민족해방전선(NLF)에 가담하여 독립투쟁에 맞서 싸우다 죽게 되는 팜 민의 서사를 함께 다룸으로써 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베트남 청년인 팜 민은 한국인에게 베트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인물로 작용한다. 그가 지닌 민족과 독립에 대한 신념과 의지는 한국이 오랜

피식민지 기간을 통해 지녀왔던 신념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이다. 팜 민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독립을 향한 비장하고 강렬한 의지는 한 국민에게 강한 동질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독자는 팜 민의 삶을 통해 왜 해방투쟁에 나서야 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과 필연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는 베트남의 혁명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가족과 사랑을 과감하게 포기한다. 그리고 해방전선 조직의 결정에 따라 전선(戰線)의 탈주자로 위장하고 암시장의 전선측 보급 공작원으로 배치된다. 그는 겉으로는 형 팜 꾸엔의 뜻에 순응하여 장사로 돈을 벌며 프랑스에 유학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족까지 속이고 비밀 공작원의 신분으로 생활한다. 비록 사랑하는 여인의 약혼 소식, 그리고 비겁자라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은 괴롭지만, 그는 조국의 혁명과 독립이 보장된 미래를 얻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팜 민의 이러한 신념은 당시 베트남해방을 꿈꾸는 많은 남성들이 공유했던 신념과도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짐작된다.

“학교 후배 되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후배들 사이에 내(팜 민-인용자)가 해방전선을 이탈한 비겁자라는 소문이 돈다면서 소안의 약혼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타트가 신문을 내렸다. 그는 눈이 불그레하게 충혈 되어 있었다.

“참 어쩔 수 없군. 나도 동지와 똑같은 경험을 했소. 불교학생회에서 만났던 어떤 여자 생각이 났소. 마음속 깊이 축복해주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뒤에서는 그들에게서 태어날 아기들에게 자랑스런 조국을 물려주겠다고 다짐하고 작전에 나가는 거요. 이것이 바로 내가 전에 말했던 사랑과 혁명이 같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황석영 2006: 321)

민족해방전선의 최종 목적은 조국의 해방과 혁명이다. 그리고 그

것은 지금 이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을 후세대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하는 의무와도 같다. 따라서 그들은 당장의 욕망을 미뤄야 하는 이유의 타당성을 이러한 지점에서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그들에게 전쟁 목적은 뚜렷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영규는 귀국 직전까지 함께 일해 왔던 동료이자 베트남인인 토이가 민족의 배반자라는 이유로 민족해방전선에게 살해되자 깊은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직업적’ 냉철함을 지키지 못하고 토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다.

토이의 죽음은 무수히 죽고 다쳐서 한 줌의 재로, 아니면 팔 다리를 잘리고 병신이 되어서 실려 간 다른 한국군 병사들의 것처럼 욕스러운 것이었다. 영규는 자기 연민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영규의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제 지쳤다, 라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황석영 2006: 339)

그와 함께 경제공작을 수행했던 토이가 민족해방전선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베트남전쟁의 주요 흐름인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것이었다. 토이가 해방전선에 의해 살해된 이유는 그의 행동이 베트남 민족의 신념인 민족주의와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영규는 토이의 죽음을 통해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만 전쟁을 이해하려 했던 냉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베트남 민족이 전쟁을 겪으면서 느꼈을 고통을 자신이 지난날 한국에서 경험했던 비극과 같은 층위에서 이해하게 된다. 결국 안영규는 토이의 죽음을 통해 정치적 이념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공유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토이의 욕된 죽음은 안영규에게 미군의 총알받이로 전장이 끌려온 자신의 욕된 처지를 재확인하는 결정된 계기가 된다(임홍배 2006: 360). 그리고 베트남 민족이 겪는 아픔과 과거 한국 민족

이 겪었던 아픔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사실 안영규는 그전에는 토이와의 연대감에 대해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안영규는 토이를 국적불명의 사나이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이에 대한 안영규의 자기 동일시는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인이 처한 곤혹스럽고 모순된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양가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팜 민이 안영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영규와 팜 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팜 민을 잔인하게 사살하는 안영규의 분노는 토이에 대해 인간적으로 느꼈던 연민이나 복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치욕을 향한 몸부림에 가까운 것이었다. 월남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냉철하게 묻는 작가의 양심적 자기 검열은 소극적 일탈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임홍배 2006: 362). 베트남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팜 민의 모습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격렬히 저항하다 무참하게 사살당한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팜 민이 안영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중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하다. 안영규의 제어할 수 없는 폭력적 광기를 통해 작가는 월남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결코 개인적 양심으로 상쇄될 수 없는 집단적 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안영규라는 인물은 한국이 지닌 여러 단면을 담고 있는 총체적인 모습을 띤다. 경제 부흥의 목적, 가해자의 위치,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제국주의의 타자적 신분은 모두 한국이 지닌 복합적인 양상이다. 조국을 빼앗기고 결국은 처참히 죽어가는 토이에게 자기 동일시적 시선을 느꼈다면, 팜 민에게서는 마치 제국주의의 권력이 피식민에게

자행했던 가해자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동안 외부의 압력에 가려졌던 한국의 치욕스러운 폭력적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게도 하는 것이다.

『무기의 그늘』에서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안영규와 토이와의 관계, 그리고 팜 민과의 관계는 자본주의 논리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특수한 구도인 동시에, 이들의 관계도는 제 3세계적 시각 혹은 탈제국주의라는 공식으로 바라볼 때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총체적인 형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외면했던 제국과 피시민지 사이에서 놓여 있었던 한국의 위치, 가해자로서 베트남을 바라보는 한국의 반성적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IV. 새로운 연대 가능성-『랩스터를 먹는 시간』

방현석(2004)의 「랩스터를 먹는 시간」은 앞서 논의한 텍스트들과는 좀 다른 층위에 위치하는데 이제 전쟁 속 개인의 문제로 한정되었던 고민들은 이제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서 연대의식을 발견하는 데 까지 이르게 된다.

주인공 건석에게는 베트남 혼혈의 형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 적 언청이에다 ‘베트콩’이라는 별명까지 있어서 건석에게 부끄러운 존재였다. 건석은 형이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생활을 유지 하지만, 정작 자신은 늘 형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불만스러워 한다. 그런데 형이 일하던 공장에서 데모에 가담하다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건석은 형의 죽음이라는 상처를 간직한 채로 베트남에 주재한 조선소에서 일한다.

우선 건석과 형(건찬)의 관계는 대립적 구도로 그려볼 수 있다. (베

트남)혼혈의 형은 피해자로, 건석은 가해자로 상정할 수 있다. 이는 곧 피지배/억압/주변/그리고 지배/권력/중심의 이중 구도와도 일치한다. 무엇보다 건석이 두려워한 것은 형이 행하는 미미한 행위들조차도 자신의 이익에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석은 건찬을 늘 경계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관계로 규정짓고 싶어 한다. 어렸을 적 ‘베트콩처럼 나무를 타보라’는 아이들의 종용에 건찬은 두려워하지만 건석은 그런 건찬을 외면한다.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건찬은 어쩔 수 없이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지게 되고 그 사고로 청력을 잃게 된다. 결국 건석의 무언적 외면은 건찬의 청력을 잃게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석은 그런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가 불안해하는 것은 형이 자신 때문에 다쳤다는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어머니에게 알려져서 피해를 볼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또한 형이 공장에서 노동 파업으로 해고직전의 상황에 놓이기 되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역시나 형이 공장을 그만 두면 곧바로 학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뿐이었다. 반면 건찬은 그러한 건석의 우려에 대해 능동적, 혹은 수동적인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이 유지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결국 건석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피해자의 침묵으로 얻어지는 임시적 평화에 불과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했을 당시 펼쳤던 논리와도 유사하다. 미국은 “아시아의 평화는 곧 미국의 평화”¹⁰⁾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베트남의 평화 수호를 자처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평화를 위해 베트남 땅에 전쟁과 죽음, 그리고

9) 서사 초반에 건찬은 건석이 자신이 동네 아이들에게 눈이 띄는 것을 창피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청력을 잃고 난 후 그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어떠한 소리와 정보를 들을 수 없게 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 타의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10) 조선일보 65/01/06.

상처를 남겨놓았다. 어찌되었든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전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서유지, 국제 사회의 평화라는 그럴듯한 보편적 명분을 내세웠지만¹¹⁾ 그 내면에 숨겨진 진실은 마치 건찬이 건석의 진심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처럼 베트남 국민들과 다른 여타 국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건찬은 공장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건석은 무사히 학업을 마치게 된다. 그리고 ‘베트콩’, ‘짜보’라는 놀림거리에서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 이유는 건찬이 공장에 취직해서 가정에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형이 공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건석과 어머니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가정 형편이 윤택해졌다는 사실이다. 건찬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건석의 집안 살림이 풍요로워진 모습은 마치 과거 월남전에 파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박정희 군대’의 참전 목적과도 유사하다. 한국에 있어 파병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돈’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용병이란 말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정부분 적합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세계의 평화수호와 국가의 경제 부흥, 그리고 가정의 부(富)라는 공적·사적인 이익을 위해 전쟁터로 나갔다. 그런데

11) 월러스틴(I. Wallerstein)은 이러한 속성을 가리켜 유럽적 보편주의라고 부른다. 그들이 보편주의에 대해 호소할 때는 대략 세 가지의 형태를 띠면서 주장하는데 첫 번째, 범유럽 세계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이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라 불리는 어떤 것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명의 충돌이라는 전문용어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항상 서구 문명이 보편적 가치와 진리에 기반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명보다 우월하다고 전제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 관한 엄정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법칙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그들은 국제법상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해도 정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연법의 경지에서 윤리적으로 합당했다고 주장했고, 또 그렇게 믿었다고 본다. 나아가 폭력적 수단 사용만이 자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명백한 악을 박멸할 수 있다는 구실로 개입자 모두 그들 자신의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체제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러스틴(2006)의 『유럽적 보편주의』를 참고할 것.

그들이 전쟁터에서 보고 느꼈던 비참한 실상, 전쟁 중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서 체화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고통과 불안, 죄의식 등은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의 후면으로 가려지게 되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려진 개인의 상처들이 사회 밖으로 표출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듯 건석은 형이 성장하면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가족의 물질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건찬의 죽음을 통과제의처럼 넘어서야만 했다. 건찬의 사인(死因)은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로 인해 데모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동사(凍死)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사실 건찬이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석은 경찰에 의해 조작된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만약 건석이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된다면, 그의 학업과 앞으로의 사회 진출 기회에 있어 보장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권력의 위협은 건석으로 하여금 진실을 묵인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건석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과 비겁함이 형을 죽음으로 이끄는 데 공조했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이해 논리만을 중요시 여겼던 그의 가치관에 전환점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 베트남행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했던 소설과 층위를 달리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전의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이 베트남이라는 공간에 놓였던 배경에는 짙은 자기 소외감에서 오는 어떤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외부 현실은 자신들을 베트남 전쟁터로 몰아가게 했다는 회피적 성격에까지 이르게 했다. 그러나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서 건석에게 베트남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형을 죽게 만들었다는 가해 의식을 반성하게 하는 공간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동시에 건석에게 상처 치유의 공간으로 작용하는 곳이기도 했다.

한편 건석의 회사 동료 일행은 베트남주재 조선소 직원이자 베트남인인 보 반 리와 충돌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들은 왜 이러한 충돌 사태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실 그 원인은 언어 소통의 단절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 말 좀 배워두시지 그랬어요?”

건석은 말을 마치고도 전에 자신이 괜한 얘기를 꺼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 발령받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오부장은 짧은 베트남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하지 않는다. 곧 떠나야 할 나라니까. 떠나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지 않을 나라니까.

“집안 다 디비도 베트남하고 피 한방울 섞은 역사가 없는 내가 와 베트남 말을 배우노?”(방현석 2004: 86)

조선소에서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건석이 유일했다. 따라서 두 집단에 있어 의사소통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뿐이었다. 건석을 제외한 다른 조선소 직원들은 베트남어를 익히기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두 나라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타인과의 의사소통 단절 내지 거부와도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결국 타인과 소통불가능하리라 믿었던 한국말은 베트남인에게 전달되어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할은 건석이 맡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한국과 베트남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고 이것은 곧 건석이 그들을 횡단하는 교차 지점에 서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¹²⁾ 모국의 언어를 통한 상대방과의 소통은 매우 중

12) 유경수(2005)는 방현석의 또 다른 단편소설 「존재의 형식」에서 통역과 번역이 수행하는 기능과 그것이 어떻게 국가와 민족간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요한 지점이다. 앞서 논의했던 소설에서 등장인물 사이에서 오가는 언어는 영어나 혹은 간단하고 쉬운 베트남어에 불과했다. 이것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게 마련이다. 소설 『머나먼 송바강』은 황일천이 전쟁에서 느끼는 독백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국어인 한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는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역시 안영규와 토이 그리고 그 밖의 인물 등 사이에서 소통은 주로 영어로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간의 대화는 감정 전달보다 정보를 습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감정의 표현으로도 상대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인간관계란 언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가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세한 차이로도 전혀 다른 의미를 생산해내는 것이 언어의 특성인 만큼 한국과 베트남을 관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두 언어를 횡단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서 한국인 건석과 여타 베트남인과는 영어라는 제3의 매개체 없이 모국의 언어를 이용해 의사소통은 물론 원천적 감정까지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건석과 그의 애인인 리엔과의 정사 장면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육체적 결합과 함께 그들의 사랑을 확정짓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체화한 사람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들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표현의 탁월함이었다. 그들은 모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

검토한다. 베트남으로 ‘골프여행’을 온 주인공 재우의 친구들은 베트남어 통역사를 두었지만 시종일관 영어안내책자를 읽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더욱 신뢰한다. 이들의 언어제국주의적 의식은 통역이 지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방해물로 지적된다. 통역과 번역의 진정한 역할은 단순히 언어의 변환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사이의 경계를 관통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연대와 화해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번역을 통해 쌍방은 이해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면 오해에 대해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낮다. 그만큼 두 인물의 관계 역시 단단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건석이 ‘무쇠 사나이’로 불리는 보 반 리이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형에 대한 죄의식을 조금씩 치유해간다는 것이다. 보 반 리이라는 인물은 베트남전쟁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버린 상처를 지니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보 반 리이의 무쇠사나이란 별명은 그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가 몸속에 서른 두개의 파편이 박힌 데서 얻은 것이다. 그가 파편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가족과 사랑하는 여인이 죽게 되었다는 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¹³⁾ 그리고 그러한 기억을 잊기 않기 위해 끝까지 수술을 거부한다. 그리고 파편은 곧 자신의 일부이며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파편이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긴장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복수를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유일한 두려움이었던걸까요?”

건석이 (보 반 리이에게-인용자)그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은 리이가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술 탔이었을까. 리이는 무방비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복수를 하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한 가지 있네. 비겁하게 죽는 것……나의 비겁으로 어머니와 동생이 죽었어. 그 날 이후로 난 한번도 살겠다는 욕심을 가져보지 않았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내 상대가 되었던 ‘박정희군인’중 그 누구도 살아남지

13) 홍기돈(2004)은 보 반 리이라는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는 인물이며, 그의 파편은 해방운동을 했던 체험의 흔적이자 현실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인물을 통해 작가는 타락한 현실에 맞서 개인이 품고 있는 고귀한 세계의 표현이라고 평가한다.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네.”(방현석 2004: 150)

보 반 리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한 죽음’이다. 그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알고 있다. 가족과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이유는 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그러한 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복수는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지만, 보 반 리이는 이것을 뛰어넘어 스스로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하는 등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건석은 보 반 리이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동안 간직해왔던 형에 대한 이중적 감정에 대해 환기하게 된다. 건석에게 형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싫은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형의 경제적인 원조 때문에 자신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가족도 부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건석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서 더 크게 작용한다. 형이 공장 노동 파업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어머니는 건석이 형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랐지만 건석은 끝까지 모른 채로 일관했다. 형의 존재는 수치스러움 그 자체였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과거 기억에 불과한 존재였기에 건석은 자신 때문에 형이 느꼈던 아픔과 외로움을 외면하고자했다. 이것은 월남전 참전과 거기서 잔인하게 자행되었던 살인 행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국의 기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한국 언론은 전쟁으로 민족 전체가 비통에 잠겨버린 베트남의 참상을 외면하고 대신 베트남 전쟁을 통한 경제 특수와 전쟁 성과만을 강조하는데 집중했다.¹⁴⁾ 그

14) 당시 주요 언론이 월남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국제적, 정치적인 논리와 그에 따라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리에 맞춰 있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월남 파병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을 제 1면에 실거나(조선일보 65/01/27) 또는 파병부대가 베트남을 집단 사살했다는 내용(조선일보 65/10/31) 등 주로 한국 군대의 성과

리고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 텍스트 역시 자전적 경험에 의지하는 전쟁 체험 소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건석과 달리 보 반 리이는 전쟁 중에 자신의 우발적 행동 때문에 죽게 된 가족에 대한 슬픔과, 역시 자신의 고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픈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한층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런 보 반 리이를 바라보며 건석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형에 대한 기억을 재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게 된다. 건석과 보 반 리이의 차이는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기억들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여부에 달려 있었다. 비단 보 반 리이가 가담했었던 북부정규군뿐만 아니라 인민해방전선 모두는 민족간의 투쟁과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조국 통일과 해방이라는 목표를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은 강자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것을 복수하려는 인간본연적인 감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여러 층위가 얽혀있던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올 후대에는 지금과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상처를 과감히 절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보 반 리이의 건강성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만 끝내 용서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리이의 말은 그 자신과 건석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중적 발언이기도 하다. 전투에서 다친 사지를 과감히 잘라내는 랍스터처럼 진정한 용기란, 피해자의 폭력에 복수를 가하려는 공격성, 전쟁의 논리로만 결부시켜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얻고자 했던 비겁함, 그리고 전쟁의 본질을 외면한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적 감정을 잘라버리는 성숙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를 언급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한국군의 사망자 혹은 사상자와 관련된 기사는 잠전 시기(1965년~1974년)를 걸쳐 2~3차례에 불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를 참조할 것.

수 있다.

결론적으로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은 각각 외면과 내면의 접근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즉 한국민과 베트남 민 사이에서 벌어졌던 언어문제는 건석의 통역을 통한 교차적 역할로 일단 해결되었다면, 건석과 보 반 리의 진정한 화해, 그리고 더 나아가 베트남과 한국의 진정한 화해는 언어를 초월하는 감정의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무엇보다 우리는 베트남이 전쟁을 통해 받았던 고통의 저변에는 한국의 가해 행위가 깔려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들과 연루되어 있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그들’만의 전쟁이 아닌 것이다. 그것이 피해와 가해의 정도 여부와 관계없이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이 더 이상 그것이 ‘그들’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제한시킬 수 없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월남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동시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국 소설은 월남전을 수동적으로만 해석하는 데 그치거나 그들의 시선을 제외한 채 ‘나’의 시선으로 월남전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 있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전쟁 한가운데 놓인 ‘불운한 피해자’라고 여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수렴적 태도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와 어우러지면서 변모하는데 역사적 진실 규명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위

치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그들을 바로 보아야 할 의무를 띠어야 할 것이다.

나로 인한 타인의 고통을 재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한 행위를 거치지 않은 자기반성은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기에 스스로 존재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마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원인에는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태로움은 결국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로 작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성하는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발로이자 필요조건이다. 우리는 역사적 태도를 수반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아를 판단하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월남전을 소재로 하는 한국 소설들이 이러한 절차를 겪고 있다는 것,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월남전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제어: 월남전, 베트남, 미국, 한국, 자아 정체성, 피해자, 가해자, 시선의 확대, 제 3의 시선, 탈제국주의, 전쟁문학, 양가감정, 자기반성, 연대의식

<참고문헌>

<1차 자료>

- 박영한. 1978. 『머나먼 송바강』. 민음사.
방현석. 2004. 『랩스터를 먹는 시간』. 창작과비평사.
안정효. 1989. 『하얀전쟁』. 고려원.
황석영. 2000. 「탑」. 『황석영중단편선집』1. 창작과비평사.
_____. 2006. 『무기의 그늘』 상, 하. 창작과비평사.

<논문 및 단행본>

- 고명철. 2003. “베트남전쟁 소설의 형상화에 대한 문제.” 『현대소설 연구』 19: 291-312.
_____. 2005. “민족주의 문학을 넘어선 민족문학론.” 『인문사회과학 논문집』 36: 87-100.
김 철. 1990. “제국주의와 무의식.” 『문학과 사회』 9: 300-319.
김현아. 2002.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노다 마사아키. 2000. 『전쟁과 인간』. 길.
마상윤. 2005. “전쟁의 그늘: 베트남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21(3): 65-95
문재원. 2005. “황석영 초기소설연구.” 『한국문학노총』 41: 409-432.
바오닌. 1999. 『전쟁의 슬픔』. 예당.
박진임. 2003.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의 특성과 참전 한국군의 정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14: 111-136.
송승철. 1993. “베트남전쟁 소설론: 용병의 교훈.” 『창작과 비평』 80: 77-94.
오은경. 2003. “파병과 전쟁문학.” 『민족문학사연구』 22: 303-326.

- 윌러스틴. 2006. 『유럽적 보편주의』. 창비.
- 유경수. 2006. “존재의 탐색과 탈식민성 연구.” 『비평문학』 22: 131-157.
-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윤영천. 2008. “동남아시아와 한국 현대시.” 『동남아시아연구』 18(1): 1-36.
- 임규찬. 1995. “분단을 넘어서.” 『민족문학사 강좌』 하, pp. 281-298. 창작과 비평사.
- 임기현. 2008. “황석영 초기 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9: 263-284.
- 임홍배. 2006. “베트남전쟁과 제국의 정치.” 『무기의 그늘』 하, pp. 349-365. 창작과비평사.
- 정찬영. 2002. “베트남전쟁의 소설적 공론화-『하얀전쟁』을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39: 209-225.
- 최동주. 1996.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0(2): 267-287.
- 최원식. 1997.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
- 하정일. 2001. “분단의 형이상학을 넘어서.” 『실천문학』 62: 289-305.
- 한겨레신문 1992년 6월 21일자, 9면.
- 한겨레신문 1993년 11월 20일자 10면.
- 홍기돈. 2004.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실천문학』 73: 396-400.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search.jsp(검색일: 2008.11.24)
<http://nim2008.com> (『님은 먼곳에』 홈페이지)

(2008. 11. 28 투고; 2008. 12. 16 심사; 2009. 1. 8 게재확정)

Abstract

A Research of Novels about the Vietnam War

Jang Yun-Mi
(Inha University)

The event which brought on a physical common point between Korea and Vietnam was the Vietnam War. Not only did the Vietnam War become the definitive starting point of the world-wide anti-war movements, but for the people of Korea, it gave them great many stories to talk about. Even after a generation has past, and with its limitations of its basis being the misery of a war, the Vietnam War still takes place in the center of many discussions in Korea. Then, we can now question the reason behind its constant reproduction. May be it is because Korea has not yet been able to erase the remaining traces of the war completely.

In the context of Korean literature, the subject of the Vietnam War has a unique meaning, which cannot be seen in other genres. This is especially so because this was the only war where Koreans were involved as one of the offenders. It is notable that the views on the war the Korean novels portray have been changing with the change of times. And as the novels progress nearer to the current times, we can see that the views of the self expand to the views of them, and the views of us. Behind such changes probably lie the deep thoughts and self examinations of the Koreans on the Vietnam War. Thus this research seeks to bring to surface the process and

expansion of Korean's views on the Vietnam War, based on a series of novels that have a Korean soldier in the Vietnam War as their main characters.

Key Words: Vietnam War, Vietnam, America, Korea, self-identity, A victim, A harmer, third-eyes, post-imperialism, War literature, self-criticism, collective awareness